

<Epilogue>

메일을 받으시고 질문을 해오신 분들이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마음 속에 품고 있을 법한 질문일 것 같아 이미 했던 설명들이지만 다시 반복 하겠습니다.

* ‘혹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 우리나라 국민이 기독교가 도입 된지 100 여년 정도 될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절대 다수 99 % 는 역시 기독교가 뭔지 몰랐을 것이고요. 기독교를 전혀 몰랐던, 그렇지만 법 없이 선하게 살다 돌아가신 5,000 년 동안 사셨던 조상 분들 모두 지옥에 가 계신 건가요 ?
2. 같은 맥락에서 예수 탄생이 2,000 년 전이니, 전체 역사를 통 틀어 이전에 사셨던 분들은 어느 잣대로 천국과 지옥에 가 계신지요 ?
3. 지금도 많은 나라 백성이 기독교 조차를 들어 본적도 없는 인류가 70 억 중에 절대다수 일 것입니다.

성경은 ‘나’ 를 구출 해주려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나’ 에 게 보내신 편지 이기에 그 목적에 별로 필요하지 않는 신학적 과학적 이론 같은 것은 크게 취급 되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견해들은 여러 구절들을 통해 저 나름대로 ‘짐작’ 해 보는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죄’ 라는 것은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 을 어긴 것인데 법은 나라 마다 다르지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죄가 아닌 것도 저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 것도 있고... 성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통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유대인 아닌 옛날 이방인은 하나님이란 것 알지도 못했고 그런 법 받은 일도 없었고, 또 질문의 지적 대로 옛날 사람, 성경이란 것, 예수라는 것 있는지도 모르는 원시 정글에 사는 사람, 또 그런 것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직 철 없는 어린애들 모두를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해서 모조리 지옥으로 보낸다면 하나님이란 분 진짜 무자비 하고 잔인한 분이겠지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이 없느니라” (롬 4:15)는 말씀 대로 법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죄라는 것이 성립 될 수 없을 것인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롬 2:14) 하신 말씀은 그런 경우의 판단 기준은 ‘법’ 이 아닌 ‘양심’ 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몸(육신)과 혼(정신)까지는 사람만이 아니고 짐승도 똑 같이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짐승에겐 없는 영(spirit 양심)이란 걸 넣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영혼(spirit)은 여호와와 더불어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잠 20:27)

그러기에 법이 있든 없든, 법을 알든 모르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잘 못을 저지르면 ‘본성으로’ (by nature)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발동하는데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짐승에겐 없는 ‘죄책감’ 이라는 것이 있기에 사람만이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 냈고 또 ‘왜’ 라고 하는 인생의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갈등이나 고민이라는 것이 있고요.

사람이라면 ‘왜’ 라는 인생의 의문을 가지며 또 그 답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찾으려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관심 없고 오로지 먹고 사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은 ‘짐승’ 과 같다고 하며 그런 사람에겐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하신 것 같습니다.

보내드린 글대로 우주의 운행, 자연과학의 법칙, 생체의 신비 같은 것에 대해 ‘왜’ ‘어떻게 하여’ ‘저절로라는 것이 가능할까’ 등 의문을 갖는다면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것 찾기를 포기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들이 “그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지니라” (롬 1:20) (#2 과학적 현상 참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 하셨거니와 이제는 ...
(행 17:30)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행 10:34)
이것은 베드로가 율법도 없는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서 한 설교입니다.

또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신 1:39)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는 말씀이 있듯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 을 먹기 이전의 아담과 이브처럼 양심에 아직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innocent) 어린애들은 별도 취급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와의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 이전의 아들을 죽게 한 장면인 사무엘 하 12 장 중에서 23 절을 보면 애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도 있을 구절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고 정의롭다(fair & just) 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후 5:10) 일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속에서도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3)로 되어 있는 것처럼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절대로 억울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취급을 받았을 것이지만 지금은 위에서 언급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 하셨거니와 이제는... 믿을만한 증거를...” (행 17:30) 확실히 주셨기에 ‘핑계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남의 일 걱정해 주시기이전 자신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시길 권합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까?

지금까지의 이야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수도 있지만 질문하신 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말씀 드리렵니다. 이것은 성경보다도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영의 영역입니다. 혼과 육은 불법체류자 신분일 때나 시민권 따 이 후나 똑같아서 돈 욕심 성적인 욕망도 변함 없이 그대로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 슬픔도 똑 같다는 얘기 했었지요. 대다수 자살하는 분들의 문제는 우울 증과 같은 정신적(혼) 문제인데 현대 의학으로 우울 증의 원인은 뇌에 미치는 화학성분의 변화 때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 지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구원여부와 상관 없이 취하듯이 이 화학물질 역시 신앙상태와 상관 없이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자살 충동 같은 것을 가지게 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여러 종류의 고통들이 많지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충동을 느낄 정도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런 분들을 마치 죄인인양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불행한 분들로 동정의 마음을 가져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병 치매 환자도 같은 경우로써 귀신들린 것이라는 등 경멸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살 직전의 상황도 어린아이나 정신박약아들의 경우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판단능력이 마비된 상태임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것이기에 공정한 그분께서는 공정히 처리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심판을 받아봐야 아는 것이지 ‘구원을 받았다=죄 사함을 받았다=영생을 얻었다=거듭났다=심판을 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짧은 질문이지만 사실은 지금까지의 긴 이야기의 핵심 point 입니다.
그 작은 차이 하나로 인해 지옥 행과 천국 행이 결정 되어지기 때문 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 했었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 판:>

우선 ‘심판’ 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첫 번째의 심판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즉 지옥과 천국 중 어느 곳으로 보내어질 것인지의 심판 입니다.

다음의 심판은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받게 되는 상과 벌의 심판 입니다. 아마도 ‘심판’ 에 관한 혼돈이 있다면 이것들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데서 온 것일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2) 즉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죄질에 따른 차별화의 심판이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같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불법체류자(죄인)의 신분이라면 국외추방을, 시민권 자(의인) 신분이라면 국내의 감옥에 가게 되는 것과 같이 그 처벌은 다르다는 설명 기억하시지요. 한 집에 살며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종(죄인)과 아들(의인)이 받는 처벌에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요.

*아들(구원 받은 자)에 대한 심판:

구원 받았다 하는 것은 나의 영적 신분이 변한 것이지 나라고 하는 육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 하십시오.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내가 고맙게도 사면을 받아 이제 시민권자가 된 것인데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육신의 성격 물질에 대한 욕심 성적인 욕망 미움 등이 변하는 것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후 5:10) 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아들’의 신분으로써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자기 서모와 음행 하는 성도도 있었는데 이미 아들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취소되지는 않지만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은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떨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고전 5:1-5).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고전 3:8-15).

사도바울 같은 사람도 자꾸 죄가 지어지는 것을 괴로워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롬 7:24)하고 절규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육신은 여전히 죄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죄)을 함이라...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그러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심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하였음이라” (롬 7 장,8 장).

***종(죄인)과 아들(의인)을 분별해 내어 처리하는 심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마 13:49)

이 심판은 ‘살아 났느냐’ (의인=구원 받았느냐) 아직도 ‘죽어 있느냐’ (죄인=구원 받지 못했느냐) 를 구분하여 죄인이면 지옥에 보내는 심판입니다. 사도신경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구원을 받은 자=아들)와 죽은 자(구원 받지 못한 자=종)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는 말대로 이 심판은 지옥-천국 중 어디로 보내지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여태 것 우리가 주로 이 심판에 대해서만 집중 논의 했고 여기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심판대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재판 받는 곳이어서 살아 있을 때 그곳에는 가지 않도록 결정 되어져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가게 된다면 “심판을 받고... 불 못에 던지 우니” (계 20:13)가 되어 그 때는 이미 too late 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심판대에 다다르기 전 곧 “길에 있을 때(아직 인생 길에 살아 있을 때) 급히 사화(해결) 하라” (마 5:25) 가 되어 있어야 되는 심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요 5:24) 하는 말씀대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 9:2) 하는 예수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진짜로 믿어져서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 죄를 다 사해주셨군요’ 하는 반응이 양심 속으로부터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절로 나오는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기쁜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라’ (신 4:2, 계 22:18, 19)고 하시건만 선악과를 먹는 날 “정령(반드시) 죽으리라” (창 2:17) 고 하신 것을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혹시 죽을 수도…)” (창 3:3)로 약간 바꾸어 믿도록 했던 것처럼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눅 8:12). 말씀을 쓰여있는 그 대로 받는 대신 변개하여 생각 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작품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고 못 밖아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요 3:18, 5:24) 라고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봐야 알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영향을 받은 아직 믿어지지 않은 마음으로써 그 사람은 곧 심판석에 가게 되는 사람이요 따라서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사’ 에서 이미 언급했던 대로 마귀의 전략은 기독교 내부로 들어와 우리들로 하여금 훌륭한 ‘기독교인’ 이 되게 하되 구원만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작전 수행을 위해 성경을 이용하면서 그럴듯하게 변개시킨 사상들 중 몇 가지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 은혜로 죄를 용서 하셨지만 과거의 죄 뿐이요 미래의 죄는 계속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 심판은 죽어봐야 알게 된다는 것 등 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 자신 있게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요 죽어봐야 안다고 말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라는 사상을 주입한 것 역시 어떻게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마귀의 책략입니다.

초대교회 선배들이 순교 당했던 것은 목에 칼을 들이대도 나는 구원 받았다 당신도 구원 받아야 된다고 담대히 당당하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글자 한 개의 차이라는 설교는 많이들 들으셨지요?
즉 구원을 해=죄를 사해=심판을 면해 ‘주신 것’ (과거완료형)을 믿는 자는 천국이요, ‘주실 것’ (미래형)을 믿는 자는 지옥이라는, 천국과 지옥은 ‘ㄴ’ 자와 ‘ㄹ’ 자의 차이라는 목사님들의 설교 말입니다.

이미 설명 드린 대로 외형상으로는 똑 같은 ‘기독교인’ 이지만 ‘ㄴ’ 이라는 씨를 받은 사실이 있었던 사람은 ‘유정란’ 기독교인이요 아직 ‘ㄹ’ 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곧 ‘무정란’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의 결국은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믿음’ 으로 가는 곳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심판을 면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언젠가 ‘주시겠지’ 하는 생각은 ‘주셨다’ 는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것’ 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괄호 안처럼 자기 마음대로 변개 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받을 것이니)” (엡 1:7)

“그가 우리를 흑 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옮길 것이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얻을 것이로다)” (골 1:12,13)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얻을 것이니)…” (엡 2:8)

‘날 구원하신(실) 예수를 영원히 찬송 하겠네’

‘확실히 믿기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얻을 것이네)’ (I am redeemed!)

모두가 다 과거 완료형이지 미래형이 아닌 것임을 눈 여겨 보십시오.

아래 찬송가 가사들은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살아있을 때 확신했던 사람의 간증인지, 죽어 심판을 받아 봐야 알게 될 것이라는 사람의 막연한 소리가 아님을 판별 하시기 바랍니다.

-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 하셨네(40),
- *나 지금 죄에서 사함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나 구원 얻었네(194),
- *나 속죄함을 받은 후한 없는 기쁨을 (183),
-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209),
- *내 죄 사함 받고서... 그 피로 구속 받았네...내게 정죄함 없겠네
(Free from condemnation=no judgment) (210),
-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Was blind, but now I see) (405),
-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내 모든 죄 사함 받고(495).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살전 1:5)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후 13:5).

(“You are disqualified” “You failed the test” ‘너는 자격상실이다’ ‘불합격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testimony in his heart)”

(요일 5:10) 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그 증거를 자신 있게 지금 간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This is my story)’(204),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 있게
해줄 my story 가 없든지 ‘확실히 믿기는’ (189) 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님을 스스로의 양심에 인정해야 합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구출 받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구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이와 같이 죽어서 심판을 받아봐야 알지 지금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 자체가 구원받은 경험이 없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논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아래 표현들을 조용히 생각하며 단어 한 개의 작은 차이지만 결과는 천국
이나 지옥이야 하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심각한 차이가 됨을 생각 하기
바랍니다.

(‘Knowledge and not doing are equal to not knowing at all’)

‘Jesus has paid all.’ (Heaven)

‘Jesus has paid almost all.’ (Hell)

‘Jesus will pay all.’ (Hell)

‘I have been saved.’ (Heaven)

‘I will be saved.’ (Hell)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Heaven)

‘There will be no condemnation.’ (Hell)

‘Do the best you can.’ (Religion=Hell)

‘I can’ t do, but Jesus can do.’ (Gospel=Heaven)

‘Christianity is not do or don’ t, but relationship.’

‘To be almost saved is to be totally lost.’

‘Your mortgage(sin) has been paid in full by your friend (Jesus).’

30 년에 걸쳐 갚아야 할 은행 빚을 나의 딱한 사정을 아는 어느 재벌친구가
10 년 전에 이미 다 갚아 주었는데 그 소식을 오늘에야 들었을 때의 나의
반응은 오로지 ‘Thank you, thank you!’ 뿐이겠지요.

그러지 않고 30 년이 되어보아야 알지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은 그 친구의 호의를 믿지 않는 배은망덕입니다.

나의 죄 값이 ‘paid in full’ 한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을 뿐, 사실은
2,000 년 전 계약서에 이미 sign 되어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Paid in full.) (요 19:30)

일본 병사 하나가 1945 년 8 월 15 일에 이미 종전 된 것도 모르고 1970
년대 까지도 광도 정글에 숨어 지냈던 것 자체도 미련 하지만, 더 미련한 것
은 종전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는데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불신’
태도라고 했지요.

2,000 년 전에 예수가 내 대신 심판을 받아 내 죄 값을 대신 다 치러 주었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재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 10:18)고 수도 없이 거듭거듭 말해 주었던만 죽어봐야 알겠다고 하는 것은 천황이 자기 보는 앞에서 다시 항복 서명하는 것을 봐야 믿겠다고 하는 그 미련한 병사처럼, 예수가 다시 못 박히는 것을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지요.

*<믿 음>

Key word 는 ‘믿음’ 임을 기억 하십시오.

믿는다는 것을 영어로는 ‘believe’ 또는 ‘trust’ 로 표현 되어 있는데 trust (신뢰)란 믿고 맡긴다는 뜻이지요. 조종사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아무런 의심이나 걱정 없이 태평양상공 비행기안에서 편히 잠들 수 있는 것은 그 조종사의 면허증을 ‘신뢰’ 하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이 복잡하게 생각함 없이 성경에 쓰여있는 ‘말’ 을 의심 없이 그대로 ‘신뢰 (trust)’ 하고 ‘받는 것’ 그것 뿐입니다.

내가 ‘이번 Christmas 때 당신을 우리 집 저녁식사에 초청 하겠는데 오시는 분에게는 최신 smart phone 하나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실 분은 오늘 중으로 답을 주십시오’ 하는 e-mail 을 보냈을 때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나를 받아드리는 것이요, 세상에 공짜 그런 비싼 물건 줄 사람이 어디 있어하며 믿지 않고 아무 답도 주지 않고 ignore 하는 것은 나를 reject 하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이군요>

그 동안 긴 글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들 성경의 내용들 만들어낸 얘기(fiction)아닌 사실(fact)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닙니다. 지옥이 있는데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하시는 예수라는 분 사기꾼 아닙니다.

어제 있었던 큰 사건을 내가 직접 본 일은 없었지만 의심 없이 믿는 것은 '중앙일보' 라 하는 신문의 글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처럼 예수라는 분 본일은 없지만 그 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나의 죄를 100% 그리고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성경' 이라는 책의 글이 의심 없이 믿어졌다면,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 자녀 지금 되었네' 하는 찬송가처럼 값없이 또 나의 공로 없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 이라고 불리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졌다면...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생명 책에 내 이름이 기록 되어졌다' 등등이지요.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 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지금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이것이 '구원' 입니다 !

너무 쉽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오히려 쉽지 않고 허전 하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며, 그러기에 너무 쉽게 해 주신 것이요, 그러기에 은혜 즉 공짜 선물 이라고 하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엡 2:8)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마귀가 집어넣어준 사상 임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그랬지요.

구원은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주신 공짜 선물이요 '선한 생활' 은 구원을 받은 이후, 즉 입시에 합격하여 '학생'이

된 이후부터의 삶이라고 그랬고요.

***〈Last Invitation〉**

불법체류자 사면과 하나님의 사면 너무 닮았기에 다시 예로 들겠습니다.
대통령은 개개인 구별하거나 따지지 않고 전원을 일괄 사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면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불법체류자(죄인)임을 등록한 사람으로써 마지막에는 내게 배달 된 Congratulation! 하는 편지와 그 속에 있는 시민증서를 받아 손에 쥔 사람에게만이라고 했지요.

자, 우편 배달부가 들고 온 아래 편지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손수 쓰신 편지 내용입니다. 선악과와 생명과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듯 이것을 ‘accept’ 하든지 ‘reject’ 하든지 당신의 자유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그 편지를 accept 와 reject 중 하나를 선택 하십시오. 지금 당신은 예수님 옆 십자가에 달려있는 두 강도들 중 어느 강도가 될까 선택만이 있을 뿐인데 그 결정하는데 무슨 복잡한 교리공부가 필요 합니까?

*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나의 죄만은 제외하고?)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

*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예수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한 재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 9:12, 10:10-18)

*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뒤에 던지셨나이다” (사 38:17)

* “내가 네 허물을 뵈뵈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사 44:22)

* “그가 찢림은 우리(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무리(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 53:5,6=BC712)

*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24)

*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엡 2:8)

*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딤후 3:5)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5:24)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저를 믿는(accept)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reject)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 3:16-18)

“내 말(초청)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요 12:48)

*이 초청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ccept() Reject()